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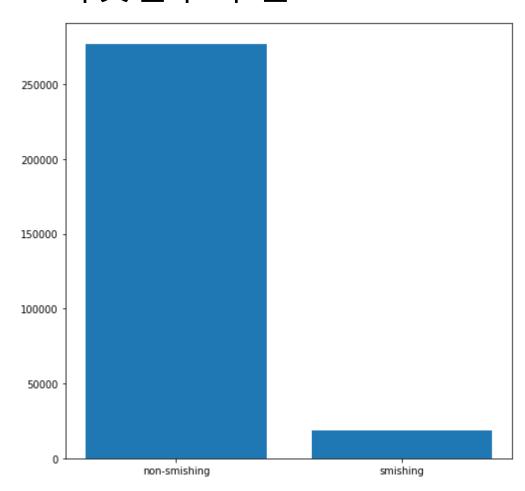


스미싱 문자 탐지



1. KB에서 공개한 29만건의 정상, 스미싱 문자 데이터를 토대로 '해당 문자가 스미싱 문자일 확률'을 예측하는 경진대회

• 타겟변수의 분포



비 스미싱 / 전체문자 = 0.063 비 스미싱 / 스미싱 = 0.067

압도적인 불균형이 특징

• 스미싱과 비스미싱 문자간 문장 길이의 차이 검정

	smishing
count	18703
mean	801
std	206.203451
min	39
25%	689
50%	876
75%	917
max	123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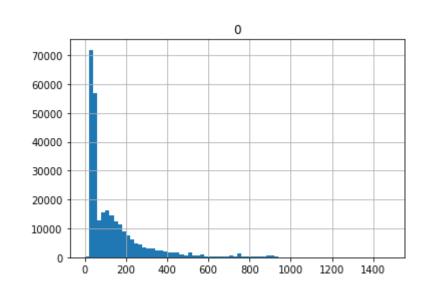
	Non-smishing
count	277242
mean	133.742391
std	149.335552
min	1
25%	39
50%	75
75%	172
max	1498

스미싱 문자의 평균: 801

비스미싱 문자의 평균: 13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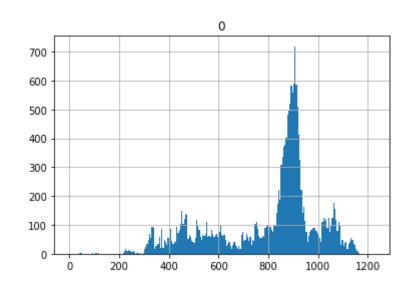
분명 평균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.

• 스미싱과 비스미싱 문자간 문장 길이의 차이 검정





KstestResult(statistic=1.0, pvalue=0.0)



stats.kstest(np.array(length_0_sample.T)[0],"norm")

KstestResult(statistic=0.9999999999999, pvalue=0.0)

문장 길이 분포의 경우, 둘 다 명백히 정규분포에서 추출되지 않았으므로 비모수 검정인 KS검정을 수행한다.

• 스미싱과 비스미싱 문자간 문장 길이의 차이 검정

	smishing
count	18703
mean	801
std	206.203451
min	39
25%	689
50%	876
75%	917
max	1230

	Non-smishing
count	277242
mean	133.742391
std	149.335552
min	1
25%	39
50%	75
75%	172
max	149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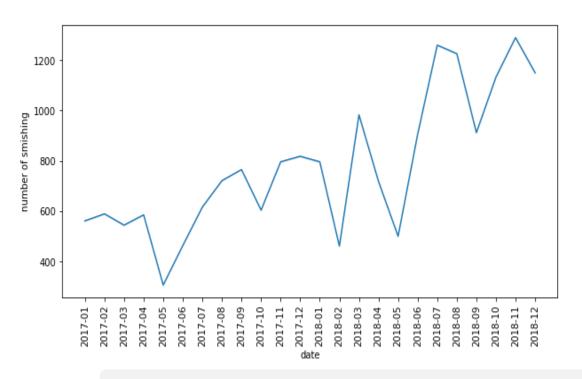
1 ## KS컴정 2 3 stats.ks_2samp(np.array(length_1_sample.T)[0],np.array(length_0_sample.T)[0]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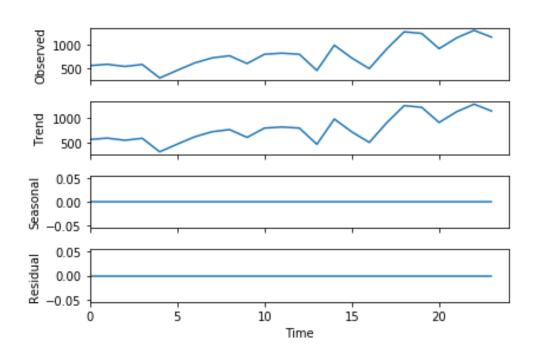
Ks_2sampResult(statistic=0.8889, pvalue=0.0)

2-sample KS검정 결과, 두 분포가 동일한 분포에서 추출됬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.

즉, 두 문장길이 분포의 경험적 누적분포는 같지 않다.

• 스미싱 문자의 시계열성





스미싱 문자의 경우, 증가하는 추세는 보이지만 다른 성분은 파악되지 않는다.

EDA 결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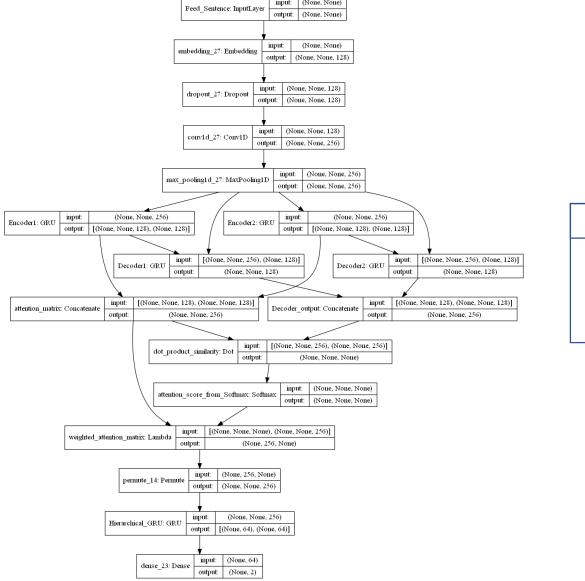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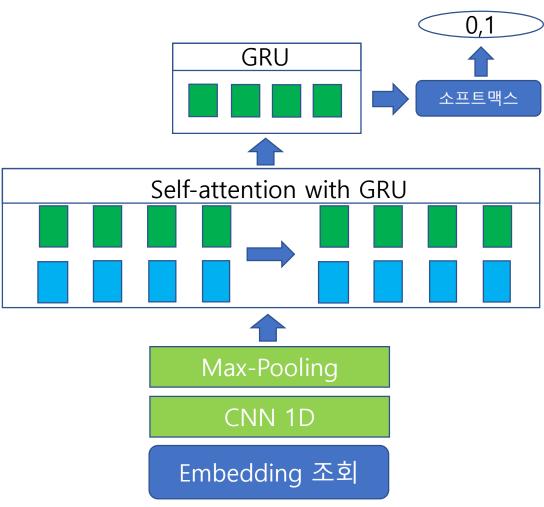
- 1. 타겟 불균형이 심각.
- 1) 단순히 모델이 전부 '스미싱이 아니다 ' 라고 판단하는 경우라도 정확도는 93% 도출
- 2) 따라서, 해당 경진대회에선 평가 함수로 AUC를 사용하도록 규정



- 2. 스미싱 문자는 정상 문자에 비해 길이가 유의하게 길다.
- 1) 사기꾼들이 피해자들에게 혼동을 주기 위해 일부러 길게 보내는 특성이 존재?
- 2) RNN계열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, 제로패딩의 존재 자체가 단서로 작용할 수 있음
- 제로패딩이 많다 -> 문장 길이가 짧다 -> 정상문자이다
- 제로패딩이 적다 -> 문장 길이가 길다 -> 스미싱 문자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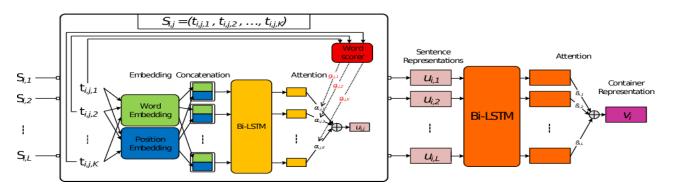
타겟 불균형에 강건하며, 제로 패딩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모델 적합 필요





개요

1. Self-attention을 활용한 계층적 LSTM을 활용한 논문1)을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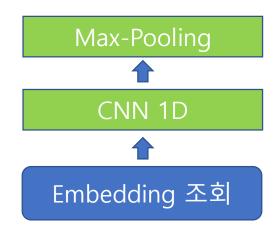


출처: who is Killed by Police: Introducing Supervised Attention for Hierarchical LSTMs, M Nguyen

2. '스미싱인가 스미싱이 아닌가 ' 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어를 강조하는 방식의 작동을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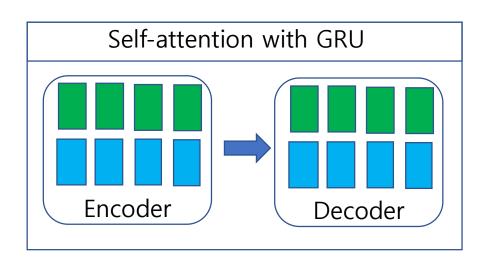


3. RNN계열 신경망을 사용하여, 제로 패딩의 양을 모델에 반영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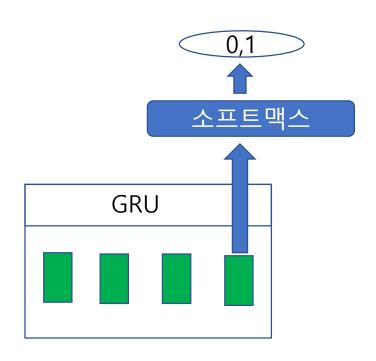


1. 특성 추출

- 1차원 컨볼루션으로 임베딩 행렬의 차원(d=256) 에서 특성만 추출
- 맥스 풀링으로 차원을 대폭 축소하여 selfattention에 전달



- 1. 셀프 어텐션
- 인코더와 디코더에 동일한 임베딩 벡터 주입
- 다음의 형식으로 셀프 어텐션을 수행 $\left\{softmax(X\cdot Y^T)\cdot X\right\}/\sqrt{d_Y}\right\}$
- 이 때, X = (인코더 임베딩) * We, Y = (디코더 임베딩) * Wd



3. 계층적 GRU

- 셀프 어텐션에서 출력된 어텐션 벡터를 입력 값으로 받아 시계열적인 패턴을 학습
- 마지막 Hidden-state를 토대로 스미싱 여부 를 판단

테스트 결과

CNN – LSTM

Validation 기준 AUC 스코어: 0.998

submission 기준 AUC 스코어: 0.95

• 계층적 셀프 어텐션 GRU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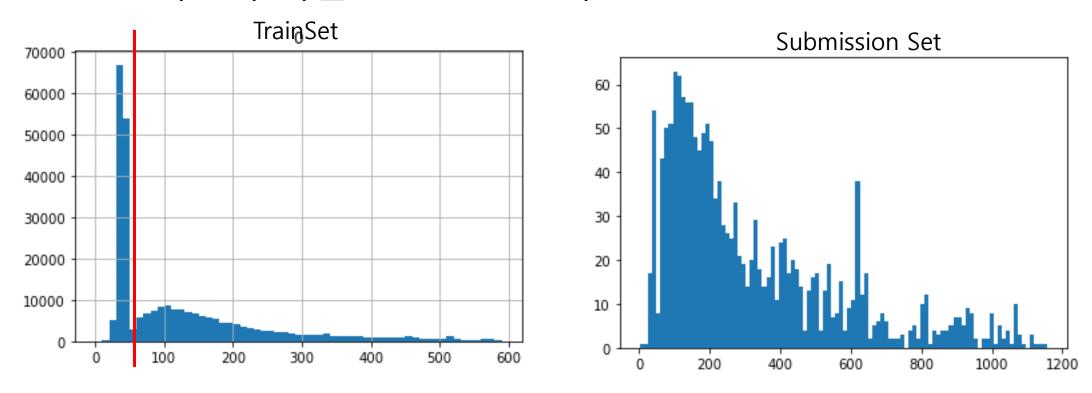
Validation 기준 AUC 스코어 : 1 Submssion 기준 AUC 스코어 : 0.91

결론

- Validation 기준 CNN-LSTM 모델에 비해 성능은 우수
- AUC스코어 기준
- GRU(1) > CNN-LSTM(0.998)
- 하지만 Submission 기준으론 CNN-LSTM 모델에 비해 성능이 뒤쳐진다.
- AUC 스코어 기준
- CNN-LSTM(0.95) > GRU(0.91)

Submission 성능 하락의 이유

• Train 세트와 다른 Submission의 분포



Train Set 분포의 경우와 달리 Submission 세트의 경우 스미싱-비스미싱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.

개선방향

- 개선점
- 제로 패딩을 정보로 쓰는 관점의 변화 필요 -> EoS 토큰을 사용하는 역방향 문장투입 고려
- 셀프 어텐션 부분을 Transformer나 BERT와 같은 non-RNN 모델로 교체 가능
- 이를 통해 연산 Cost를 절감 및 추가적인 성능 향상 기대

감사합니다